



2020년 12월 21일

복된 성탄절에 전 세계의 사랑하는 침례교인들에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 마태 복음 2:2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동방 박사들은 여러 달 동안 천리길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측불허의 여행 경로,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나라와의 만남 등이 이 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를 인도 한 별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위험해 보이는 여정과 불확실한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는 때가 있고, 익숙한 안락함을 뒤로하고, 계획된 목표를 제쳐 놓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만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지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한 걸음을 옮겨 놓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기고 계시다는 소망을 붙잡고 그 한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의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갈등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낯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상기시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리아와 요셉도 동방 박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낯은 곳에서 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낯은 자로,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7 천 9 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지난 70년 동안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예상치 못한 여정을 떠나야 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에게 그들이 행한 모범을 따를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낯선 곳에서 온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해 온 예물을 받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신지요?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경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 복음 2:2)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마태 복음 2:11). 목적지를 잘 몰랐다는 것은 경배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압박이 경배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가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우선순위를 위해 호화로운 궁전의 부름이나 권력의 유혹 등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힐지 모르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임재의 축복 외에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축복, 좋은 직업, 권세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침례교 연맹과 126개국의 침례교회를 대표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일라이자 M. 브라운

세계침례교 연맹

사무총장